악몽 여전한데…이번엔 '혹한 공포'

■8만 7천명 목숨 앗아간 파키스탄 지진 1년

한국의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8일은 파키스탄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무려 8만7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비극은 이슬람 단식월인 라마단이 시작된지 사흘째 발생했다. 이로 인해 350만명이 생활터전을 잃었으며 52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 지역이 지진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구호단체들은 지금도 자금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2% 이상' 부족한 원조=파키스탄이 쓰나미나 카트리나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거듭 관심을 재촉하자 국제사회는 지난해 11월 58억2천700만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얀 반데무르텔레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최근 이슬라마다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 분야의 자금이 특히 부족하다"면서 "이 상태에서 혹한이 온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국제사회 원조 늘려야

ERP의 전체 예산 2억7천만달러에서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는 64%. 그러나 그나마 보건 부문은 35%에 불과해 올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진피해 지역에는 지금도 3만3천명이 난민촌에 살고 있으며, 겨울이 본격화되면 고지대의 임시가옥에 사는 3만명이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의 90%는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영구주택이 아닌 나무나 함석지붕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과 달리 올해 '북풍한설'이 몰아칠 경우 산 아래 난민촌으로 몰려드는 인구가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언제쯤 완전 복구되나=최소한 10년이 걸릴 것이라는게 유엔의 전망이다. 유엔개발계획의 캐서린 크레이브로우 국장(위기예방 및 복구담당)은 "복구작업은 내년은 고사하고 앞으로 2년 뒤, 아니면 5년 뒤에도 절대 완료될 수 없으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지역을 두루 둘러봤다는 크레이브로우 국장은 "그들은 '동냥' 대신 자신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면서 "다른 어떤 재해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의연한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완전복구까진 최소 10년

그러면서 그는 "올해 겨울도 따듯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생존자들은 지금 단식중=라마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카슈미르 계곡을 찾아왔다.

그러나 지진으로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이번 라마단은 첫번째 기일이란 의미가 강하다. 라마단 첫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지역 사원에는 알라(신)에 경배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무자파라바드에 사는 G.M.무프티는 라마단 첫날 현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나는 지난해 잃어버린 아들이 보고싶어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면서 "단식월이 주민들의 고통을 새삼 되새기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꺼지지 않은 분노의 불씨=지난달 21일 무자파라바드 시내에서 수백명의 주민들이 '맨발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불만은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있다는 것.

카슈미르 독립운동 단체와 학생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정부 산하의 '지진복구 및 재활청'이 이재민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전시행정' 말고는 아무 것도 안했다"면서 "유엔이 직접 보상금을 분배하라"고 촉구했다. /뉴델리=연합뉴스

美 인터넷 도박 전면 봉쇄 착수

'도박 금지법' 의회 통과 이어 부시 이번주 서명…파장 예상

인터넷 도박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주말 미 의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금주중 이 법안에 서명할게 확실해 인터넷 도박 이용객들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내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재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미국 내에서 불법화돼 있는 인터넷 도박 규제를 한층 강화, 사실상 인터넷 도박을 전면 봉쇄하는 법안에 금주중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번에 통과된 새 법률의 시행세칙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들은 향후 9개월 내에 거래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짐 리치 하원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얼마나 많은 미국 가정이 인터넷 도박에 따른 가산 탕진으로 슬픔에 잠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법안 처리를 환영했다.

그는 또 "만약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도박꾼들은 가정의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도중이나 휴대폰이나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있는 순간에도 도박을 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중, 국제사회 의식 아베와 정상회담 수락"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한국과 중국 양국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 정권을 갓 출범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해 '문전박대'라는 부정적 인상을 주지않기 위한 배려였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분석했다.

취임 후 첫 외유인 아베 총리의 양국 방문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9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해당국 정부의 공식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한.중 동시방문이 성사된 것은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여온 아베 총리와 "일단 한번 만나보자"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와 '역사인식' 등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 입장차가 그대로여서 정상회담에 대한 동상이몽의 가능성이 지적됐다.

특히 양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재임시절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만큼, 후계자인 아베 총리가 적어도 당분간은 야스쿠니에 가지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이 이번에 아베 총리의 방문을 받아들인 것도 그의 야스쿠니 참배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도쿄=연합뉴스

"침대보로 신발 닦지 마세요"

中, 해외여행 가이드북 출간

"침대 시트로 신발 닦지 마세요" 중국이 2일 해외여행시 지켜야할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이 책은 일부 중국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시 보이는 추태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데 따라 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중국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이 가이드북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중국 해외여행객들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달 세계 각지에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3만여건의 '어글리 중국인'의 추태를 모았다.

이 가이드북은 미국과 유럽에서 '어글리 중국인'의 추태가 맹위를 떨치면서 중국어로된 경고판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 경고판에는 '침 뱉지 마세요' '쓰레기 투척 금지' '화장실 쓴뒤 물 내리세요'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공중도덕 내용이 적혀있어 얼굴을 붉히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책은 침 뱉고 쓰레기 마구잡이 투척 외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떠들거나 새치기하는 행위, 금연구역에서 흡연과 인도에서 나란히 길을 걸으며 다른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아무런 생각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병의 철통경계?

이스라엘군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 1일 남부 레바논에서 완전 철수한 이후 레바논 군대가 배치된 남부 마르와힌 마을에서 2일 한 소년이 장난감 총을 들고 서 있다. /AP=연합뉴스

美 학교서 또 인질극…여학생 3명 사망

미국에서 지난달 27일에 이어 2일에도 학교에 침입한 범인의 학생 인질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희생됐다.

2일 펜실베이니아주 니켈 마인스에 있는 암만파 학교에 트럭운전사 찰스 칼 로버츠(32)가 총기를 들고 침입, 인질극을 벌이면서 여학생 3명을 쏴 숨지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인은 웨스트 니켈 마인스 학교에 들어가 남학생들은 모두 내보낸 뒤 여학생들을 일렬로 세워 다리를 묶어놓은 채 총격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안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순간 창문을 깨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는 범인도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 학교는 교실 1개만 있는 소규모 학교로 6-13세까지 어린이 25-30명이 재학중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콜로라도주 베일리 시의 플래트 캐년 고교에 한 남자가 총기를 들고 들어가 총을 쏘며 학생 6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이 진입하자 여학생 한 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시인 고은 '노벨문학상' 받을까

베팅업체 "확률 13대1"

올해 노벨 문학상이 5일 또는 12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한 베팅업체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국의 고은 시인을 수상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했다.

최근 dpa통신 보도에 의하면 도박배팅 전문업체인 '래드브룩스'(Ladbrokes)는 약 40명의 작가 리스트 중 올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터키 출신 오르한 파묵을 지목했다. 그의 수상 확률은 4대 1. 이어 매년 후보로 거론되는 시리아의 시인 아도니스는 5대 1로 점쳐졌다.

다른 작가로는 폴란드의 리스자드 카푸친스키가 6대 1, 미국의 조이스 캐럴 오츠가 7대 1, 또 다른 미국 작가 필립 로스는 11대 1 등이었다. 고은 시인은 덴마크의 시인 잉거 크리스텐센, 스웨덴의 시인 토머스 트란스트로메르와 함께 13대 1로 나타났다.

고은 시인은 지난해에도 래드브룩스의 도박사들이 본 유력 후보군에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시리아 시인 아도니스가 유력하며 고은 시인과 스웨덴의 시인 토머스 트란스트로메르가 그 뒤를 쫓고 있다고 점치기도 했다. /연합뉴스